

[37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¹⁾

(가)

새터 관전이네 머슴 대길이는
 상머슴으로
 누룩도야지 한 마리 번쩍 들어
 도야지우리에 넘겼지요
 그야말로 도야지 떡따는 소리까지도 후딱 넘겼지요
 밥때 늦어도 투덜덜 줄 통 모르고
 이른 아침 동네길 이슬도 털고 잘도 치워 흰히 가르마 냈지요
 그러나 낮보다 어둠에 빛나는 먹눈이었지요
 머슴방 등잔불 아래
 나는 대길이 아저씨한테 가가거겨 배웠지요
 그리하여 장화홍련전을 주룩주룩 비 오듯 읽었지요
 어린아이 세상에 눈떴지요 ㉠
 일제 36년 지나간 뒤 가가거겨 아는 놈은 나밖에 없었지요

대길이 아저씨한테는
 주인도 동네 어른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지요
 살구꽃 핀 마을 뒷산 올라가서
 홀적삼 치너 따위에는 눈요기도 안하고
 지겟작대기 뉘어놓고 먼 데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
 나도 따라 바라보았지요
 우르르 달려가는 바다 울음소리 들리는 듯하였지요
 찬 겨울 눈더미 가운데서도
 덜렁 거드랑이에 바람 잘도 드나들었지요
 그가 말했지요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다
 남하고 사는 세상이란다

대길이 아저씨
 그는 나에게 불빛이었지요
 자다 깨어도 그대로 켜져서 밤새우는 긴 불빛이었지요
 - 고은, 「머슴 대길이」 -

(나)

사랑방에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것은 텃토지가 밀려 잔뜩 주눅이 든 허리 굽은 새우젓 장수다.
 건넌방에는 아버지가 계신다.
 금광 덕대를 하는 삼촌에다 금방앗간을 하는 금이빨이 자랑인 두집담 주인과 어울려
 머리를 맞대고 하루 종일 무슨 주관질이다.
 할머니는 헛간에서 국수들을 돌리시고 어머니는 안방에서 재봉틀을 돌리신다.
 찌걱찌걱찌걱..... 할머니는 일이 힘들어 불이 부우셨고,
 돌돌돌돌..... 어머니는 기계 바느질이 즐거워 입을 병긋대신다.
 나는 사랑방 건넌방 헛간 안방을 오가며 딱지를 치고 구슬 장난을 한다.

충원군 노은면 연하리 470, 충주시 역전동 477의 49,
 혹은 안양시 비산동 489의 43,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227의 29.
 이렇게 옮겨 살아도 이 틀은 깨어지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사랑방에 아버지는 건넌방에, 할머니는 헛간에 어머니는 안방에 계신다.
 내가 어려서부터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외지로 떠돈 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였으리.

어쩌랴, 바다를 건너 딴 나라도 가고 딴 세상을 헤매다가도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니.
 저승에 가도 이 틀 속에서 살 것인가, 나는 그것이 싫지만.

어느새 할아버지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나는 나의 이 집이 좋아졌다.
 사랑방과 건넌방과 헛간과 안방을 오가면서
 철없는 아이가 되어 딱지를 치고 구슬 장난을 하면서
 나는 더없이 행복하다, 이 그림 속에서.
 - 신경림, 「즐거운 나의 집」 -

37.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거를 회상하는 화자의 목소리가 드러나 있다.
- ② 화자가 소망하는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대화체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표출되고 있다.
- ④ 일상적 삶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38. ㉠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길이 아저씨'에게 한글을 배워 세상에 대해 알아 갈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② ㉡: '대길이 아저씨'가 낮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하는 태도가 공동체 내부에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 준다.
- ③ ㉢: '대길이 아저씨'가 현실 세계에 대한 대안의 공간으로 순수한 자연의 세계를 동경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 ④ ㉣: 이기적인 삶을 멀리하고자 했던 '대길이 아저씨'의 가치관이 화자에게도 전달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⑤ ㉤: '대길이 아저씨'가 화자에게 특별한 존재로 남아 변함없이 화자의 삶을 이끌어주었음을 보여 준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인간은 자신이 나고 자란 '집'에 대해 본원적인 애착을 갖게 된다. 이곳은 자신을 감싸주던 가족들과 함께 했던 근원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성장하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에 이끌려 결국은 자신이 나고 자란 '집'을 떠나게 된다. 그렇지만 인간은 언젠가 그 '집'으로 심리적인 회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본원적인 애착이 그려낸 기억의 '그림'이 나이가 들수록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 ① '사랑방 건넌방 헛간 안방을 오가며' 놀이를 즐기고 있는 화자의 모습은 가족들이 감싸주는 공간에서 즐거운 유년 시절을 보낸 화자를 떠오르게 하는군.
- ② '이 그림 속'에서 '더없이 행복하다'고 한 것은 가족들과 함께한 유년의 따듯했던 기억의 '그림'이 화자에게 본원적인 애착을 유발하기 때문이겠군.
- ③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어려서부터 외지로 떠돈 것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에 화자가 이끌렸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딴 세상을 헤매다가도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니'라고 한 것은 화자가 '나의 집'으로 심리적인 회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겠군.
- ⑤ '할아버지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아지면서'는 화자가 '이 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겠군.

1) 2016학년도 3월 고3 모의고사 현대시 (2016년 3월 시행)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²⁾

산중(山中)에 책력(冊曆) 없어 사시(四時)를 모르더니
 눈 아래 헤친 경(景)이 철철이 절로 나니
 듣거니 보거니 일마다 선간(仙間)이라.
 ㉠ 매창(梅窓) 아침별에 향기(香氣)에 잠을 깨니
 산옹(山翁)의 할 일이 곧 없지도 아니하다.
 울 밀 양지(陽地) 편에 외씨(外씨)를 뿌려 두고
 매거니 둔우거니 빗김에 가꿔 내니
 청문고사(靑門故事)를 이제도 있다 하겠다. [A]
 망혜(芒鞋)를 단단히 신고 죽장(竹杖)을 홀어 짚으니
 도화(桃花) 핀 시내 길이 방초주(芳草洲)에 있었어라. [B]
 잘 닦은 거울 속 절로 그린 석병풍(石屏風)
 그림자를 벗을 삼아 서하(西河)로 함께 가니
 도원(桃園)은 어드메오 무릉(武陵)이 여기로다.
 남풍(南風)이 건듯 불어 녹음(綠陰)을 해쳐 내니
 계절 아는 피꼬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희황(羲皇) 베개 위에 풋잠을 얼핏 깨니 [C]
 공중(空中) 젖은 난간(欄干) 물 위에 떠 있구나.
 마의(麻衣)를 걷어 올리고 갈건(葛巾)을 기울여 쓰고
 구부렀다 기대었다 보는 것이 고기로다.
 하룻밤 빗기운에 홍백련(紅白蓮)이 섞여 피니 [D]
 바람기 없어서 만산(萬山)이 향기로다.
 염계(濂溪)를 마주보아 태극(太極)을 묻는 듯
 태을진인(太乙真人)*이 옥자(玉字)를 해쳐 놓은 듯
 노자암(鶴鷺巖) 바라보며 자미탄(紫薇灘) 곁에 두고
 장송(長松)을 차일(遮日) 삼아 석경(石逕)에 앉으니
 인간(人間) 유월(六月)이 여기는 삼추(三秋)로다.
 청강(淸江)에 떠 있는 오리 백사(白沙)에 옮겨 앉아 [E]
 백구(白鷗)를 벗을 삼고 잠 깰 줄 모르나니
 무심(無心)코 한가(閑暇)함이 주인(主人)과 어떠한가.
 - 정철, 「성산별곡」 -
 * 태극(太極): 우주만물이 생긴 근원이라고 보는 본체(本體).
 * 태을진인(太乙真人): 하늘에 있는 진선(眞仙).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성 상징을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② 애상적 어조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계절의 변화 양상과 관련지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시구를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44. <보기>와 <자료>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고전시가에서는 고사(古事)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소재’를 활용한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고사와 시적 상황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연상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작품에서는 다음의 <자료>와 같이 고사에 나오는 소재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 2016학년도 3월 고3 모의고사 고전시가 (2016년 3월 시행)

< 자 료 >

- 외씨: 중국 진나라 때 ‘소평’이 나라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청문 부근에서 농사를 지으며 심었다는 오씨.
- 도화(桃花): 중국 진나라 때 한 어부가 별천지인 무릉도원에 가게 되었다는 고사에 나오는 복숭아꽃. ‘무릉도원’에는 복숭아꽃이 만발하였다고 함.
- 희황(羲皇) 베개: ‘희황’은 태평성대를 이룬 중국 전설에 나오는 ‘복희씨’의 다른 이름으로, ‘희황 베개’는 ‘태평한 세상’을 상징함.
- 홍백련(紅白蓮): ‘염계(濂溪)’가 지은 ‘애련설(愛蓮說)’에 나오는 ‘연꽃’. 이 ‘연꽃’은 ‘군자’의 풍모를 빗대었음.
- 백구(白鷗): 인간의 ‘무심(無心)’을 알아보는 갈매기. 어부가 갈매기를 잡으려는 마음을 갖고 바다로 나서자 평소에는 그를 따르던 갈매기들이 멀리 도망가 버렸다는 고사에서 나옴.

- ① [A]에서 ‘외씨’를 활용한 것은, ‘외씨’를 뿌리며 사는 ‘산옹’의 소박한 삶에서 ‘소평’의 삶이 연상되었기 때문이겠군.
- ② [B]에서 ‘도화’를 활용한 것은, ‘시내 길’에서 본 ‘도화’의 모습에서 ‘복숭아꽃’이 만발한 ‘무릉도원’이 연상되었기 때문이겠군.
- ③ [C]에서 ‘희황 베개’를 활용한 것은, ‘풋잠’을 자다 깨며 느낀 평안함에서 ‘희황’의 태평한 시대가 연상되었기 때문이겠군.
- ④ [D]에서 ‘홍백련’을 활용한 것은, ‘만산’의 연꽃 ‘향기’를 맡으면서 ‘염계’가 말한 ‘군자’의 덕이 연상되었기 때문이겠군.
- ⑤ [E]에서 ‘백구’를 활용한 것은, ‘무심코 한가’한 ‘주인’의 모습과 갈매기를 잡으려던 ‘어부’의 모습이 같은 것으로 연상되었기 때문이겠군.

45. 윗글의 ㉠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기러기 우는 밤에 내 홀로 잠이 없어
 잔등(殘燈) 돋워 켜고 전전불매(輾轉不寐) 하는 차에
 창(窓) 밖에 굶은 빛소리에 더욱 망연(茫然)하여라
 - 강강월의 시조 -

- ① ㉠의 ‘매창’과 <보기>의 ‘창’은 모두 ‘산옹’과 ‘나’가 각각 머물고 있는 곳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의 ‘아침별’은 ‘산옹’이 맞고 있는 아침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보기>의 ‘기러기 우는 밤’은 ‘나’가 지새고 있는 밤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③ ㉠의 ‘향기’는 ‘산옹’의 잠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 <보기>의 ‘굶은 빛소리’는 ‘나’가 잠들지 못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 ④ ㉠의 ‘할 일’은 ‘산옹’이 세상을 위해 해야 할 과업이고, <보기>의 ‘잔등 돋워’는 ‘나’가 자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이다.
- ⑤ ㉠의 ‘곧 없지도 아니하다’에서는 ‘산옹’의 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고, <보기>의 ‘더욱 망연하여라’에서는 ‘나’의 처지에 대한 애상감이 드러나 있다.

[34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³⁾

(가)

생시런가 꿈이런가 천상에 올라가니
 옥황은 반기시나 ㉠ 못신선이 꺼리는구나
 두어라 ㉡ 강호에 놀이며 달이 내 분수에 옳도다.

꽃잠에 꿈을 꾸어 ㉢ 천상십이루(天上十二樓)에 들어가니
 옥황은 웃으시되 못신선이 꾸짖는구나
 어즈버 ㉣ 백만억 장생을 어느 사이 물어보리.

하늘이 이지러졌을 때 무슨 기술로 기워냈는고
 백옥루(白玉樓) 중수(重修)*할 때 어떤 ㉤ 목수 이루어냈는고
 옥황께 여쭙보자 하였더니 다 못하여 왔도다.

- 윤선도, 「몽천요(夢天謠)」 -

*중수: 건축물 따위의 낡고 헌 것을 손질하며 고침.

(나)

청광(淸光)을 머금으니, 폐부(肺腑)에 흘러 들어
 호호(浩浩)한 흉중(胸中)*이 아니 비친 구멍 없다.

옷가슴 헤쳐 내어 광한전에 돌아 앉아
 마음에 먹은 뜻을 다 사뢰려 하였더니,
 맘나쁜 부운(浮雲)이 어디서 와 가리었나
 천지(天地) 회맹(晦盲)하여 백물(百物)을 다 못보니,
 상하 사방에 갈 길을 모르겠다.

요잠반각(遙岑半角)*에 옛빛이 비치는 듯
 운간(雲間)에 나왔더니, 떼구름 미쳐 나니,
 희미한 한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

중문을 닫아 놓고, 정반(庭畔)에 따로 서서
 매화 한 가지 계영(桂影)인가 돌아보니,
 처량한 암향(暗香)이 날 따라 근심한다.

소림(疎簾)을 지워 놓고, 동방에 혼자 앉아
금작경(金鵲鏡) 닦아내어 벽상에 걸어 두니,
제품만 밝히고, 남 비칠 줄 모른다.

단단 환선(團團紈扇)*으로 긴 바람 부쳐 내어
 이 구름 다 걷과다. 기원 녹죽(淇園綠竹)으로
 일천 장 비를 매어 저 구름 다 쓸과다.

장공(長空)은 만리요, 이 몸은 진토(塵土)니,
 서의한* 이내 뜻이 헤나니 허사로다.

가뜩 근심 많은데, 긴 밤이 어떠한가
 뒤척이며 잠 못 이뤄 다시곰 생각하니,
 영허소장(盈虛消長)*이 천지도 무궁하니,

풍운이 변화한들 본색이 어디 가로
 우리도 단심(丹心)을 지켜서 명월(明月) 볼 날 기다리노라.

- 최현, 「명월음(明月吟)」 -

* 호호한 흉중: 넓고 넓은 가슴 속.
 * 요잠반각: 멀리 아득히 보이는 우뚝 솟은 산봉우리.
 * 단단 환선: 흰 비단으로 만든 둥근 부채.
 * 서의한: 맹세한, 약속한.
 * 영허소장: 달이 차고 지며, 초목이 자라고 스러짐.

3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대화의 형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명령적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5.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현실 정치를 떠나 초야에 묻혀 지내던 윤선도는 자신을 질시하는 세력들을 의식하여 임금의 지극한 부름을 사양했다. 그러나 고산에 은거하면서도 임금을 도와 부정적인 현실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치를 하고 싶었던 윤선도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현실을 꿈 속 천상계의 일에 빗대어 「몽천요」를 창작하였다.

- ① ㉠은 작가가 임금의 부름을 사양한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은 작가가 은거하고 있는 삶의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은 작가를 필요로 하는 임금이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은 작가가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려는 대상으로, 임금을 떠나는 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은 무너진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주체로, 작가 자신을 비롯한 인재를 비유한다고 볼 수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에서 작가는 임진왜란 당시의 혼탁하고 암담한 시대 현실 속에서 신분의 제약으로 인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피란길에 오른 임금을 달에 비유하여 임금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사뢰려’는 ‘뜻’은 혼탁하고 암담한 시대 현실과 관련된 것이겠군.
- ② ‘옛빛’이 ‘점점 아득’하다는 것은 임금이 처한 상황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겠군.
- ③ ‘제품만 밝히’는 ‘금작경’은 피란길에 오른 임금의 상황을 비유한 것이겠군.
- ④ ‘단단 환선’으로 ‘바람’을 일으키려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을 바꾸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자신의 뜻이 ‘허사’라고 한 것은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자신을 ‘진토’로 인식한 결과이겠군.

레전드스터디닷컴

<http://LegendStudy.com>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⁴⁾

(가)

내 언제고 지나치는 길가에 한 그루 남아 선 노송(老松) 있어 바람 있음을 조금도 깨달을 수 없는 날씨에도 아무렇게나 뻗어 높이 치어든 그 검은 가지는 추추히* 탄식하듯 울고 있어, 내 항상 그 아래 한때를 머물러 아득히 생각을 그 소리 따라 천애(天涯)*에 노닐기를 즐겨하였거니, 하룻날 다시 와서 그 나무 이미 무참히도 베어 넘겨졌음을 보았나니

진실로 현실은 이 한 그루 나무 그늘을 길가에 세워 바람에 울리느니보다 빠개어 육신의 더움을 취함에 미치지 못하겠거늘, 내 애석하여 그가 섰던 자리에 서서 팔을 높이 허공에 올려 보았으나, 그러나 어찌 나의 손바닥에 그 유현(幽玄)한* 술바람 소리 생길 리 있으랴

그러나 나의 머리 위, 저 묘막(渺漠)한* 천공(天空)에 시방도 오고 가는 신운(神韻)*이 없음이 아닐지니 오직 그를 증거할 선(善)한 나무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로다

- 유치환, 「선한 나무」 -

- * 추추히: 우는 소리가 구슬뜨게.
- * 천애: 하늘의 끝.
- * 유현한: 깊고 그윽하며 미묘한.
- * 묘막한: 아득하게 넓은.
- * 신운: 고상하고 신비스러운 운치.

(나)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 피가도 피가도 전라도 싹뿔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꽃,

숯불 같은 자운영꽃 머리에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 그을린 이마 흰하게

꽃등도 달아준다

흐르다 흐르다 목메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 뻘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지리산 몽툰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퍼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냐고,

㉣ 지리산이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

일어서서 꺾꺾 웃으며

무등산을 보며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노을 떠 무등산이 그렇다고 흰한 이마 끄덕이는

고갯짓을 바라보며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려자식들이

퍼간다고 마를 강물인가를.

- 김용택, 「섬진강 1」 -

4) 2016학년도 4월 고3 모의고사 현대시 (2016년 4월 시행)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 ② (가)는 특정 어미를 통해, (나)는 의문과 확인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③ (가)는 명암의 대비를 통해, (나)는 대립적 시어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표출한다.
- ④ (가)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나)는 관찰 사실을 묘사하여 대상의 역동성을 부각한다.
- ⑤ (가)는 친숙한 상황을 가정하여, (나)는 의인화된 대상을 등장시켜 공감적 정서를 표현한다.

44.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바람 있음을 조금도 깨달을 수 없는 날씨’에도 노송이 ‘추추히 탄식하듯 울고’ 있다고 표현한 것에는 자연의 미세한 변화에 반응하는 노송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
- ② ‘무참히도’에는 ‘항상 그 아래 한때를 머물러’ 노닐었던 화자가 노송이 ‘베어 넘겨’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드러난다.
- ③ ‘애석하여’에는 노송을 ‘길가에 세워 바람에 울리’는 것보다 ‘빠개어 육신의 더움을 취’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
- ④ ‘팔을 높이 허공에 올려 보았으나’, ‘유현한 술바람 소리가 생길 리’ 없다고 한 것에는 자신이 노송에 미치지 못한다는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
- ⑤ ‘증거할 선한 나무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표현에는 ‘묘막한 천공’에 ‘신운이 없음’을 인지한 화자의 상실감이 드러난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 ~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보 기>

「섬진강 1」은 섬진강과 그 주변의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끊임 없는 수탈로 황폐해진 농촌의 고된 상황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농민들의 생명력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시인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농민들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것은?

- ① ㉠에서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는 개울물의 이미지는 농민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환기하는군.
- ② ㉡에서 꽃등은 황폐한 농촌 상황에 놓인 농민들의 고된 삶을 부각하는 소재이군.
- ③ ㉢에서 그리워 얼싸안는 행위는 힘겨운 삶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농민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군.
- ④ ㉣에서 지리산이 꺾꺾 웃는 모습은 수탈을 당하면서도 삶의 여유를 잃지 않는 농민들의 삶을 보여주는군.
- ⑤ ㉤에서 강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농민들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군.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⁵⁾

(가)

고려 속요는 고려 시대 궁중에서 형성되어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宴饗)에서 전승되어 불린 노래를 가리킨다. 고려 속요의 기원과 형성에는 민간의 노래가 관여되었다.

민간의 노래가 궁중 잔치의 노래로 사용된 연원은 중국의 오래된 시집인 『시경(詩經)』의 ‘풍(風)’에서 찾을 수 있다. ‘풍’에는 민간의 노래가 실려 있는데 사랑 노래가 대부분이다. ‘풍’에 실린 노래는 중국은 물론 고려와 조선의 궁중 잔치에서도 불렀다. 또한 조선의 궁중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연향 악곡을 선정하였다.

남녀 간의 사랑 노래를 포함한 민간의 노래가 궁중악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구조에서는 왕권을 공고히 하고 풍속을 교화(教化)하는 수단이 필요했는데, 예법(禮法)과 음악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때 그 과정에서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한 노래 가운데 인륜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은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 궁중악으로 편입되었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 노래는 그 화자와 대상이 ‘신하’와 ‘임금’의 구도로 치환되기 용이했기 때문에 궁중악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이처럼 민간 가요의 궁중 악곡으로의 전환은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편입·흡수 과정을 통해 상·하층이 노래를 함께 향유한 화합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A]	關關雎鳩(관관저구)	꾸옥꾸옥 우는 물수리 한 쌍
	在河之洲(재하지주)	하수(河水)의 모래톱에 있다.
	窈窕淑女(요조숙녀)	요조숙녀는
	君子好逑(군자호구)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

위의 시는 ‘풍’에 실린 「관저(關雎)」 편 첫째 작품으로 작품의 짜임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미 짝을 지은 물수리 암수의 모습과 앞으로 짝을 이룰 요조숙녀와 군자의 모습이 상응하면서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움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문왕(文王)과 후비(后妃)*의 덕을 읊은 것, 부부간의 화락(和樂)과 공경(恭敬)을 읊은 것, 풍속 교화의 시초 등이 노래에 대한 평(評)이 이를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노래는 궁중에서 불렸을 때 국가적 차원의 의미까지 담게 될 여지를 갖게 된다.

한편, 고려 속요와 『시경』의 ‘풍’은 공통점이 있지만 고려 속요는 ‘풍’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고려 속요는 민간의 사랑 노래가 궁중악으로 정제되어 편입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기도 했다. 즉 작품의 특정 부분에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형식적 장치를 마련하여 한 작품이 구성될 때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더하였다. 그리고 궁중 연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부분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예컨대, 전체적으로 애뜻한 그리움의 정서를 보이는 작품에 ㉡송축의 내용을 담거나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어를 붙이기도 한다. 「동동」과 「가시리」는 이러한 변화를 비교적 잘 보여 주고 있다.

(나)

덕(德)으란 곰빅 예 받좁 고 복(福)으란 립빅 예 받좁 고
 덕(德)이여 복(福)이라 호놀 나스 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서사>

정월(正月)스 나릿므른 아으 어저 녹저 흐 논디
 누릿 가운데 나곤 몸하 흐 울로 녀셔
 아으 동동(動動)다리 <정월령>

이월(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燈)스불 다호라
 만인(萬人) 비취실 즈시 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이월령>

삼월(三月) 나며 개(開)흐 아으 만춘(滿春) 들 윗고지어
 는 믹 브롤 즈슬 디너 나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삼월령>
 - 작자 미상, 「동동」

(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비 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 (大平盛代)

날리는 엇디 살라 흐 고
 비 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 (大平盛代)

잡스 와 두어리마는 논
 선흐 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디 (大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 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서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 (大平盛代)
 - 작자 미상, 「가시리」-

* 문왕과 후비 : 고대의 이상적인 성인 군주와 그의 부인인 태사.

25.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려 속요는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에서 사용되었다.
- ② 『시경』의 ‘풍’은 조선의 궁중악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 ③ 『시경』의 ‘풍’에 실린 노래에는 민중의 삶이 반영되어 있다.
- ④ 『시경』의 ‘풍’과 고려 속요는 모두 상층 노래가 하층 문화에 영향을 준 결과물이다.
- ⑤ 궁중악에서는 남녀의 사랑이 군신 간의 관계로 확장, 전환되어 해석될 수 있었다.

5) 2017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고전시가. (2016년 6월 시행)

26. ㉠~㉣을 바탕으로 (나)와 (다)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아으 동동다리’는 ㉠의 예로 볼 수 없다.
 - ②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으나, ㉣의 예로는 볼 수 없다.
 - ③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다.
 - ④ (다)의 ‘위 증증가 대평성티’는 ㉣의 예로 볼 수 있으나, ㉣의 예로는 볼 수 없다.
 - ⑤ (다)의 제1연에서 ‘위 증증가 대평성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다.

27. (가)를 참고하여 [A], (나),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자연과 인간 간의 조화로움이, (나)의 <정월령>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한 외로움이 드러나 있군.
 - ② [A]의 ‘물수리 한 쌍’과 (나)의 ‘만춘 들 윗곳’은 생활 속에서 민중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A]에서는 화락의 상황을, (다)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A]에서는 제1행과 제2행이, (다)에서는 제1연과 제2연이 대상의 변화에 따른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군.
 - ⑤ [A]에서는 풍속을 교화할 만한 이상적인 사랑을, (나)에서는 모두가 우러러볼 만한 ‘덕’을, (다)에서는 ‘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군.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⁶⁾

(가)
 아랫도리 다박술 깔린 산(山) 넘어 큰 산(山) 그 넘엇 산(山)
 안 보이어 내 마음 등등 구름을 타다.

우뚝 솟은 산(山), 묵중히 엮드린 산(山), 골골이 장송(長松)
 들어섰고, 머루 다랫넝쿨 바위 영서리에 엮혔고, 살살이 딱딱나
 무 역새풀 우거진 데 너구리, 여우, 사슴, 산(山)토끼, 오소리,
 도마뱀, 능구리 등(等),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산(山), 산(山), 산(山)들! 누거만년(累巨萬年) 너희들 침묵(沈默)이
 흠뻑 지리함죽 하매,
 산(山)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엮드린 마루에, 확
 확 치밀어 오를 화염(火焰)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핏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싸릿순
 씹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 박두진, 「향현(香峴)」-

(나)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다)
 ㉢눈은 따뜻하다. 오버를 걸치고 눈길을 걸을 때 이마를 적시는
 함박눈은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한다. 작은 산 너머 거의 눈에 파
 묻힌 초가집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삶의 질은 온도를 체험케
 한다. 눈이, 함박눈이 쏟아지는 저녁, 잊고 있던 친구들의 얼굴이
 각별히 그리워지고 마치 두터운 옷 속에 간직된 체온처럼 그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정이 조용히 피어남을 느낀다. 안부 편지를 쓰고
 싶어지고 어디선가 정다운 전화를 받고 싶은 것이다. 이웃 동네와
 교통이 단절된 자기 집에 식구들과 모여 앉아 따뜻한 온돌에 발
 을 뻗고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느낀다.

눈은 조용하다. 사뭇 쏟아지는 함박눈은 한 송이 한 송이가
 무한한 이야기를 도란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더욱 고
 요하게 한다. 그것은 고요한 가락들로 이루어진 웅장한 교향곡
 이라는 인상을 준다. 특히 어두운 밤중에 창밖으로 그칠 줄 모
 르고 내리는 함박눈을 바라보면 온 세상 아니 온 우주가 무한히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하다.

눈이 쌓이는 밤은 고요하다. 그러기에 고독하기 마련이다. 그
 러나 그 고독은 삭막하거나 허전하기보다는 따뜻한 내용을 갖게
 한다. 고요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삼
 의식하게 되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스스로를 다시금 발견 하고
 생각하게 된다. 나의 삶, 나의 위치, 우리와 자연의 관계를 그
 본연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눈은 명상적이다.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책상 위의 전깃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 가지

6) 2017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현대시 (2016년 6월 시행)

지 않는다. 각별한 무슨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 때문이 아니다. 어느덧 명상에 잠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밤 누가 사색가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가 철학가로 변하지 않겠는가. 무한히 고요하고 거룩할 만큼 순수한 시간이다. 사색이 날개를 펴고 자유로운 명상에 잠긴다. 눈이 쌓이는 깊은 밤 혼자 앉아 있는 서재는 사색의 보금자리요, 책상 위에 밝혀놓은 램프불은 사색의 꽃이다. 눈 내리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철학가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 박이문, 「눈」-

3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대구 표현을 통해 회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과거의 체험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특정 어구를 점층적으로 나열하여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35.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산이 '누거만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것을 '지리함즉 하'다고 말함으로써 화자가 마주한 현실이 지향하는 세계와 거리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가)의 '내 기다려도 좋으랴'와 관련하여 볼 때 '화염'이 치밀어 오르는 것은 화자가 기대하는 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③ (나)에서 '만난다면', '좋아하지 않으랴'라고 말하는 화자는 자신이 소망하는 만남이 앞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겠군.
- ④ (가)의 '내 마음'이 '둥둥 구름을 타'는 것은 '큰 산', '그 넘었 산'을 바꾸려는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의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는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⑤ (가)의 '뿔대를 잊은 ~ 즐거이 뛰는 날'은 평화로운 세계를, (나)의 '넓고 깨끗한 하늘'은 화자가 '그대'와 만나 진정한 합일을 이루려는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물의 결핍감을, ㉡은 불의 충족감을 비유한다.
- ② ㉠은 비의 부정적 의미를, ㉡은 소리의 긍정적 의미를 함축한다.
- ③ ㉠은 비에 대한 불안감을, ㉡은 소리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
- ④ ㉠은 물의 생동하는 힘을, ㉡은 불이 소멸하는 상황을 형상화 한다.
- ⑤ ㉠은 상승하는 물의 움직임, ㉡은 하강하는 불의 움직임을 구체화한다.

37. (다)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는 '온 세상'이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한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 ② 글쓴이는 '눈이 쌓이는 깊은 밤'에 '서재'에 앉아 '철학가'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 ③ 글쓴이는 자아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눈이 쌓이는 밤'에 체험하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④ 글쓴이는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에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와 같은 일상적인 일들에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떠올리면서 유대감이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

38. (다)를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은 ㉡감각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인 '따뜻하다'를 사용하여 '눈'이라는 사물의 속성을 개성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정서는 글쓴이가 ㉢그 사물과 함께 떠올린 기억 속의 정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와 ㉤를 모두 포함하는 짧은 글을 두 문장으로 지어 봅시다.

- ① 현재는 없다. 기나긴 과거와 끝없는 미래만 있을 뿐이다.
- ② 우리는 둘이 아니다. 너와 나는 한길을 걷는 영원한 벗이다.
- ③ 시간은 모순이다. 험겨운 시간은 천천히, 즐거운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
- ④ 지식은 차갑다. 지혜의 따뜻함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에 생기를 북돋아 준다.
- ⑤ 자갈밭은 포근하다. 자갈밭에서 어머니가 예쁜 자갈들을 내 손에 쥐어 주시던 모습에서 포근함을 느낀다.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면 좋을까?

수시모집 최적화 & 합격을 위한 제언

레전드스터디 입시전략 컨설팅 센터

<http://LegendUniv.com>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⁷⁾

(가)

향단아 ㉠ 그넷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 한 풀꽃더미로부터,
자살한 나비 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같이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나)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넷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좇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치면서 말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 나희덕, 「땅끝」 -

3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며 화자를 성찰하게 하고 있다.
- ② ㉡은 작품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며 화자와 청자가 갈등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 ③ ㉠과 ㉡은 모두 소망에 이르기 위한 수단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주변의 대상들과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 ⑤ ㉡과 달리 ㉠은 화자의 정서를 빗대어 보여 주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인간은 이상을 동경하는 존재로,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대한 미련이나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고뇌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을 겪기도 한다. 이런 고뇌와 좌절은 유한적 존재인 인간이 겪어야 하는 운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을 지향하는 인간의 모습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보여 주며, 문학에서 보여 주고자 하는 가치 있는 삶의 태도이기도 하다.

- ① ‘수양버들나무’, ‘풀꽃더미’, ‘나비 새끼 피꼬리들’은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결별해야 할 대상으로 볼 수 있군.
- ② ‘저 하늘’은 화자가 동경하는 이상과 연관된 공간이겠군.
- ③ ‘울렁이는 가슴’은 현실적 제약을 벗어나 이상을 성취하고 싶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군.
- ④ ‘서(西)으로 가는 달’은 현실적 제약을 극복할 수 없는 운명을 지닌 화자를 나타내고 있군.
- ⑤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는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어려울 지라도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33.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삶의 좌절을 표현한 것이다.
- ②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얻는 보람을 표현한 것이다.
- ③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는 삶의 시련과 이를 극복한 성취감을 표현한 것이다.
- ④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는 삶의 시련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 ⑤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는 삶의 고통 속에서 깨달은 삶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다.

7) 2016학년도 7월 고3 모의고사 현대시 (2016년 7월 시행)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⁸⁾

(가)

빈천(貧賤)을 팔려고 권문(權門)*에 들어가니
 덤 없는 흥정을 누가 먼저 하자고 하겠는가
 강산(江山)과 풍월(風月)을 달라하니 그건 그리 못하리
 - 조찬한 -

(나)

어리석고 어수룩하기로 나보다 더한 이 없다
 길흉화복(吉凶禍福)을 하늘에 맡겨 두고
 누항(陋巷)* 깊은 곳에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썩은 짚을 섶으로 삼아
 ㉠ 서 훑 밥 닷 훑 죽(粥)에 연기(煙氣)도 자욱하다
 설 데운 송냥으로 빈 배 속일 뿐이로다
 내 삶이 이리한들 ㉡ 장부(丈夫) 뜻을 바꿀런가
 안빈(安貧) 일념(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뜻한 바대로 살려 하니 갈수록 어긋난다
 가을이 부족(不足)한데 봄이라 넉넉하며
 주머니가 비었는데 병(瓶)이라고 담겼으랴
 빈곤(貧困)한 인생(人生)이 천지 간(天地間)에 나뿐이라
 배고픔과 추위로 피로워도 일단심(一丹心)을 잊을런가
 의(義)를 위해 목숨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자루와 주머니에 줌음이 모아 넣고
 전쟁 오 년에 감사심(敢死心)*을 가져 있어
 주검 밟고 피를 건너 ㉢ 몇 백 전(戰)을 지냈던고
 내 몸이 여유 있어 일가(一家)를 돌아보랴
 수염이 긴 노비는 노주분(奴主分)*을 잊었거든
 ㉣ 불이 왔다 알리는 걸 어느 사이 생각하리
 경당문노(耕當問奴)*인들 누구에게 물을런고
 손수 농사짓기가 ㉤ 내 분(分)인 줄 알리로다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 * 권문: '권문세가'의 준말. 권세가 있는 집안.
- * 누항: 가난한 사람이 사는 곳, 누추한 곳을 이룸.
- * 풍조우석: 바람 부는 아침과 비 오는 저녁.
- * 감사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 * 노주분: 노비와 주인의 구분.
- * 경당문노: 밭 갈기는 마땅히 노비에게 물어야 함.

3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애상적인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가)에서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한다.
- ③ (나)에서는 의성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넘치게 표현한다.
- ④ (가), (나)에서는 모두 감정 이입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심화한다.
- ⑤ (가), (나)에서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통해 구절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소재
- ② ㉡: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화자가 지키려는 뜻
- ③ ㉢: 화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히 싸웠던 전쟁
- ④ ㉣: 한해의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할 때
- ⑤ ㉤: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넉넉한 태도

39.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조선 시대에 여러 내외환을 겪으면서 나라의 사정은 어려워지고 권력과 부귀를 지니지 못한 선비들도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들은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선비로서 지조와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삶 사이에서 갈등했다. 조찬한의 시조와 박인로의 「누항사」에는 선비들이 현실적 고민 속에서도 선비로서의 삶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① (가)의 '빈천'은 선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② (가)의 화자가 '강산과 풍월'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선비로서의 삶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③ (나)의 '누항'은 가난한 현실로 인해 선비로서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드러나 있는 공간이군.
- ④ (나)의 화자가 '빈곤한 인생' 속에서도 '일단심'을 잊지 않겠다는 모습에는 선비로서 지조와 신념을 지키며 살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군.
- ⑤ (가)의 화자가 '권문'을 찾은 모습과 (나)의 '안빈 일념'을 적게 지닌 화자의 모습을 통해 현실과 타협하며 살았던 과거의 태도를 반성하는 선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레전드스터디 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

8) 2016학년도 7월 고3 모의고사 고전시가 (2016년 7월 시행)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⁹⁾

(가)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못쳐세라
 시비(柴扉)를 여지 마라 날 촌 즈리 님 이스리
 밤ดวง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괴 벗인가 흐 노라 <1수>

(나) 셋갓 래 기나 즈 르나 기동이 기우나 트나
 수간모옥(數間茅屋)*을 죽 은 줄 웃지 마라
 어즈버 만산 나월(滿山蘿月)*이 다 님 거신가 흐 노라 <8수>

(다) 한식(寒食) 비 온 밤에 봄빛치 다 퍼졌다
 무정(無情)흔 화류(花柳)도 새 를 아라 띄엿거든
 엇더타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는 고 <17수>

(라) 어지 밤 비 온 후(後)에 석류(石榴)곶지 다 띄엿다
 부용 당반(芙蓉塘畔)*에 수정렴(水晶簾)을 거더 두고
 늘 향한 김흔 시름을 못내 푸러 흐 노라 <18수>

(마) 창(窓)밭기 위석버석 님이신가 이러 보니
 혜란 혜경(蕙蘭蹊徑)*에 낙엽(落葉)은 무스 일고
 어즈버 유한흔 간장(肝腸)이 다 끈칠까 흐노라 <19수>
 - 신희, 「방옹시여(放翁詩餘)」-

- * 수간모옥 : 방이 몇 칸 되지 않는 작은 초가.
- * 만산 나월 : 산에 가득 자란 덩굴 풀에 비친 달.
- * 부용 당반 :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가.
- * 혜란 혜경 : 난초가 자라난 지름길.

16.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의 삶의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선경후정의 전개 방식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라)에서는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심리적 변화를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⑤ (마)에서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들을 점층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17. <보기>의 ㉠, ㉡를 고려하여 (가)~(라)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방옹시여」는 선조(宣祖) 사후에 정계에서 밀려난 신희가 은거 상황을 배경으로 창작한 시조 작품을 모아 놓은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30수는 몇 개의 작품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은 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궁심을 표현한 작품군, ㉡'님'으로 표상되는 선왕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을 표현한 작품군 등이 있다.

- ① (가)의 '눈'은 ㉠와 연관된 시어로, 화자의 은거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 주는 단서이다.
- ② (나)의 '수간모옥'은 ㉠와 연관된 시어로, 화자의 답답한 심정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이다.
- ③ (나)의 '만산 나월'은 ㉡와 연관된 시어로, '님'이 부재한 상황을 절감하게 하는 소재이다.
- ④ (다)의 '봄빛'은 ㉡와 연관된 시어로, '님'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촉발하는 계기이다.
- ⑤ (라)의 '부용 당반'은 ㉡와 연관된 시어로, 화자가 연모하는 대상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다.

18. (마)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벽사창(碧紗窓)이 어룬 어룬 커늘 님만 너겨 풀썩 니러나 쪽
 싹 나서 보니
 님은 아니오 명월(明月)이 만정(滿庭)흔 디 벽오동(碧梧桐)
 저즌 님허 봉황(鳳凰)이 느 러안자 긴 부리를 휘여다가 두 느
 래에 너허 두고 슬금슬금 깃 다듬는 그림자 | 로다
 모쳐로 밤일식 만정 행여 낮이런들 늬 우일 번흐 여라
 - 작자 미상 -

- ① (마)의 초장과 <보기>의 초장에서는 모두 감각적 자극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군.
- ② (마)의 초장과 <보기>의 초장에서는 모두 창밖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화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군.
- ③ (마)의 중장과 <보기>의 중장에서는 모두 화자의 착각을 불러일으킨 대상이 확인되고 있군.
- ④ (마)의 중장에서는 착각을 야기한 대상에 대한 묘사가, <보기>의 중장에서는 착각을 야기한 대상에 대한 비판이 제시되고 있군.
- ⑤ (마)의 중장에서는 화자의 내면적 고통을 토로하고 있고, <보기>의 중장에서는 타인의 평가와 조소를 의식하고 있군.

레전드스터디닷컴

<http://LegendStudy.com>

9) 2017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고전시가.(2016년 9월 시행)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¹⁰⁾

(가)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괴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 윤동주, 「병원」-

(나)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뜰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목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저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목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 박목월, 「나무」-

1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 ⑤ (가)는 현재형 시제로 계절의 상징성을, (나)는 과거형 시제로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을 보여 주고 있다.

20. <보기>의 관점에서 (가), (나)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나)의 화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대상에 공감한다. (가)의 화자는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습에 주목하고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다. (나)의 화자는 여행 중에 만난 ‘나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한다. 이를 통해 (가), (나)의 화자는 대상과의 동질성을 확인한다.

- ① (가)의 화자는 ‘병원 뒤뜰’에 누워 있는 ‘여자’를 관찰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여로에서 만난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 처지에, (나)의 화자는 ‘나무’에게서 본 ‘수도승’, ‘과객’, ‘파수병’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에 대한 원망을 ‘여자’와 공유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금잔화 한 포기’를 꽂고 병실로 들어가는 ‘여자’에게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읽어 냄으로써, (나)의 화자는 ‘나무’들이 ‘외로워 보였다’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공감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그가 누웠던’ 곳에 ‘누워 본다’고 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뽑아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닷컴

<http://LegendStudy.com>

10) 2017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현대시 (2016년 9월 시행)

[35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¹¹⁾

(가)

나는 죄인처럼 수그리고
 나는 코끼리처럼 말이 없다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너의 언덕을 달리는 찻간에
 조고마한 자랑도 자유도 없이 앉았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다면
 너의 가슴은 열었으리라
 그러나
 나는 안다
 다른 한줄 너의 흐름이 쉬지 않고
 바다로 가야 할 곳으로 흘러내리고 있음을

지금
 차는 차대로 달리고
바람이 이리처럼 날뛰는 강 건너 별판엔
 나의 젊은 녀이
 무엇인가 기다리는 듯 얼어붙은 듯 섰으니
 육된 운명은 **밤 우에 밤**을 마련할 뿐

[A] 잠들지 말라 우리의 강아
 오늘 밤도
 너의 가슴을 밟는 못 슬픔이 목마르고
 얼음길은 거칠다 길은 멀다

길이 마음의 눈을 덮어줄
 검은 날개는 없느냐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북간도로 간다는 강원도지와 마주앉은
 나는 **울 줄 몰라 외롭다**

- 이용악,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

(나)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B]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놓고 마음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 김수영, 「눈」 -

(다)

㉠ 하는 수 없이 낙향해 버리고 만 것이 어느덧 철 수가 바뀌었다. ㉡ 날마다 산을 바라보고, 밤마다 물소리를 이웃하는 것밖에, 나는 책 한 권 바로 읽지 못하고, 소란한 세상을 병든 몸으로 숨어서 살아간다. 친한 벗에게는 편지 한 장 오지 않고, 들리는 소문이란 쫓기는 백성의 울부짖음밖에 아무 것도 없었다.

어찌지 못할 설움 속에 그래도 울먹거리는 마음을 다소 가라앉히기는, 노란 국화가 피면서부터였다. 여름에 미리 파 뒀던 한평 남짓한 못에다 뒤결 미나리깡에서 물을 따 대었다. 산에 가서 기이한 돌을 가져다 쌓기도 하고, 강가에서 흰 모래와 갈대 몇 포기도 날라 온 보람이 있어, 방 둘 부엌 하나밖에 없는, 이름 그대로 나의 외로운 초가삼간엔 하루아침에 가을이 왔다. 무엇을 하며, 누구와 더불어 얘기하나? 무척은 지루하고 고달프던 세월도 소슬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줄달음을 치는 듯하였다. 쓸쓸한 벗 국화와 갈대꽃이 창 밖에 와서 기다려도, 이 내 어찌지 못할 설움을 그들도 하소연하지 않는가? 높은 구름이 못 위에 어리는 날이면, 창을 열고 먼 산을 바라다가 또 꽃을 바라고, 내 마음의 애무(愛撫)는 이 가냘픈, 그러나 칼날 같은 마음 앞에 적이 설레었다.

㉢ 서릿발이 높아지자 국화는 더욱 청초해 가고, 나는 국화를 바라보단 불현듯 맨발로 섬돌에 내리도록 서글퍼졌다.

논밭이 가까운 나의 집에는 이따금 메뚜기가 풀숲으로 뛰어든다. 수탉은 메뚜기를 잡으러 쫓아가다간 놓쳐 버리고, 담장 위에서 꼬끼오 하고 길게 목청을 뽐는다. 무척 고요한 대낮에 낮담 소리가 끝나면, 마음은 더욱 고요해진다.

서울 성북동 아무 운치도 없는 집을 꾸미라고 근원 화백(畫伯)이 보내 주신, 손수 가꾼 국화분을 하룻밤 자고 나니 닭들이 꽃과 잎을 모조리 따 먹고 부러진 줄기가 뒷마루에 떨어졌더니, 닭도 시골 닭은 국화를 먹기는커녕 국화 그늘 아래 즐거이 벌을 쪼이며 준다. 사람이 콩깍지만 먹고 살거니, 미물이 꽃을 먹는 풍류를 아니 배울 수 있겠는가 하고, 그때는 웃을 수밖에 없었으나, ㉣ 닭만큼도 국화를 즐기지 못하는 지금의 나의 마음을 국화는 알 것이다.

아아, ㉤ 국화가 나에게 한갓 슬픔을 더해 준다기로서니, 영혼과 육신이 함께 목마른 지금의 나에게 국화가 없으면 낙엽이 창살을 휘몰아치는 기나긴 가을밤을 어떻게 견디랴.

- 조지훈, 「무국어(撫菊語)」 -

3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나)와 (다)는 색채의 대비를 통해 화자 내면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와 (다)는 계절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④ (가)~(다) 모두 공간의 변화에 따른 정서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를 활용하여 역동적인 느낌을 강화하고 있다.

11) 2016학년도 10월 고3 모의고사 현대시 (2016년 10월 시행)

3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청자는 의인화되어 있다.
- ② [B]는 특정 어구를 반복하고 있다.
- ③ [A]와 [B] 모두 구체적 청자가 설정되어 있다.
- ④ [A]는 명령형 어미, [B]는 청유형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⑤ [A]는 영탄적 어조, [B]는 냉소적 어조가 나타나 있다.

37. 제시된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제] (가)와 (다)는 모두 일제 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가)와 (다)에서는 화자 또는 작가가 처한 시대 현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에서 비롯된 심적 상황이 나 태도 등에서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작품에서 근거가 되는 구절을 찾아보자.

- ① (가)의 ‘죄인처럼 수그리고’ 있는 화자의 모습과 (다)의 ‘병든 몸으로 숨어서’ 살아가는 작가의 모습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 ② (가)에서는 ‘두만강’이 화자에게, (다)에서는 ‘국화’가 작가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존재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③ (가)의 ‘바람이 이리처럼 날뛰는 강’은 (다)의 ‘쫓기는 백성의 울부짖음밖에’ 없는 세상과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밤 우에 밤’에서도, (다)의 작가는 ‘지루하고 고달프던 세월’에서도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가)의 ‘울 줄 몰라 외롭다’와 (다)의 ‘어찌지 못할 설움’에서 화자와 작가의 심적 상황을 느낄 수 있다.

38.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이 작품은 차이를 동반하는 반복, 즉 변주를 중심으로 행과 행, 연과 연이 구조화되어 있다. 각 연에서는 반복되는 시구들이 있고 거기에 새로운 시구가 점층적으로 덧붙여지고 있으며, 그러한 변주가 연과 연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변주를 통해 상황이나 화자의 태도가 구체화되고, 의미의 점층적 강화가 이루어진다.

- ① 1연에서는 ‘떨어진’, ‘마당 위에 떨어진’이 점층적으로 덧붙여지면서 ‘눈은 살아 있다’의 상황이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 ② 1~2연으로 이루어진 전반부의 내용은 3~4연으로 이루어진 후반부에서 변주된다고 볼 수 있다.
- ③ 1연과 3연은 ‘눈은 살아 있다’라는 시구를 중심으로, 2연과 4연은 ‘기침을 하자’라는 시구를 중심으로 변주되고 있다.
- ④ 2연의 ‘눈더러 보라고 마음놓고 마음놓고’는 4연의 ‘눈을 바라보며’로 변주되면서 의미의 점층적 강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⑤ 4연의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에서는 ‘기침을 하자’가 ‘가래라도 뱉자’로 변화되면서 거기에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와 ‘마음껏’이 덧붙여져 있다.

39.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낙향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것이었음을 ‘하는 수 없이’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② ㉡: 동일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날마다’, ‘밤마다’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③ ㉢: 가을이 깊어질수록 국화의 청초함이 돋보이게 됨을 ‘더욱’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 ④ ㉣: 국화를 여유 있게 즐기지 못하는 현재 자신의 처지를 ‘답만큼도’를 통해 부각하고 있다.
- ⑤ ㉤: 국화를 보면서 점점 위축되어 가는 자신의 존재감을 ‘한 것’을 통해 부각하고 있다.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2)

(가) 자연을 소재로 한 시조 작품들은 조선 시대 사대부들에 의해 창작된 시조 문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대부들은 이들 시조를 통해 자연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었다. 이들에게 있어 자연은 질서와 조화를 이룬 아름다움의 공간이자 완상의 대상이었다. 또한 자연은 영원불변한 우주 만물의 보편타당한 이치이자 인간이 지향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천리(天理)가 구현된 관념적 공간이었다. 따라서 자연의 본성을 궁구하는 것은 이를 통해 자연에서 발견한 천리를 인간의 현실에서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자연을 소재로 한 사대부들의 시조는 이러한 노력을 형상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청산(靑山)는 옛데하야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A] 유수(流水)는 옛데하야 주야(晝夜)에 굿디 아니논고
 □ 우리도 그치디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호리라
 - 이황, 「도산십이곡」 <후 5> -

위 시조에는 자연에 구현된 천리가 곧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타당한 이치라고 보는 시각과 함께, 자연을 닮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현실에서도 천리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현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은 자연을 소재로 한 16세기 사대부들의 시조에서 빈번히 드러나는데, 이는 무수한 좌절을 겪은 끝에 도덕적, 이념적 정당성을 내세워 현실 정치를 주도하게 되었던 당대 사대부들의 낙관적 전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7세기에 들어 사대부들은 당쟁과 외적의 침략으로 혼란스러워진 현실에서 성리학적 이념과 도덕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다. 이 시기 사대부들의 시조에서 자연은 여전히 천리가 구현되어 있으며 질서와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간주되었지만,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먼 혼탁함과 부조리의 공간으로 여겨졌다. 이들 시조에서 화자는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에 몰입하고 그 흥취를 즐긴다. 그러는 가운데 이와는 동떨어진 현실에 대한 거리감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12) 2016학년도 10월 고3 모의고사 고전시가. (2016년 10월 시행)

(나)
 압개에 안기 짓고 뉘미희 히 비췌다
 비뉘라 비뉘라
 밤믈은 거의 디고 날믈이 미러 온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강촌(江村) 온갓 고지 먼 빗치 더욱 도타 <춘 1>
 우는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습가
 이어라 이어라
 어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 들락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갓 고기 뛰노는다 <춘 4>
 긴 날이 저르느 줄 흥(興)에 미쳐 모르도다
 돌디여라 돌디여라
 빗대를 두드리고 수조가(水調歌)를 불러 보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애내성 중에 만고심(萬古心)*을 기 뉘 알고 <하 6>
 수국(水國)에 ㄱ올히 드니 고기마다 슬져 인다
 단드러라 단드러라
 만경 징파(萬頃澄波)에 슬꺾지 용여ᄃ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인간(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추 2>
 - 윤선도, 「어부사시사」 -

* 애내성 중에 만고심: 주자의 '무이구곡가' 중 한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사공의 뱃노래에 드러난 세상 만고의 근심'을 뜻함.

43.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7세기 사대부들의 시조에서 나타나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들이 당시 경험한 현실의 혼란이 반영된 것이다.
 - ② 이전 시기의 시조와 달리 17세기 사대부들의 시조에서는 천리와 자연이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 ③ 현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16세기 사대부들의 낙관적 전망은 이들에 의해 창작된 시조의 내용에 영향을 주었다.
 - ④ 16세기와 17세기 사대부들의 시조에는 자연을 관념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 있다.
 - ⑤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시조를 통해 자연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었다.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면 좋을까?
 수시모집 최적화 & 합격을 위한 제언

레전드스터디 입시전략 컨설팅 센터
<http://LegendUniv.com>

44. (가)의 맥락에서 [A]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산', '유수'는 모두 인간이 지향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천리를 연상시키는 소재라 할 수 있다.
 - ② '만고에 프르르며', '주야에 굶디 아니는고'는 '청산'과 '유수'를 통해 드러난 보편타당한 이치의 속성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초, 중장은 인간의 현실에서 천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대한 한탄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종장에서 '청산'과 '유수'의 속성을 '우리'와 관련된 것으로 재진술한 것은, 자연에 구현된 천리를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이치로 보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종장은 자연을 닮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현실 속에서 천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45. (가)를 바탕으로 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춘 1>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차하는 '안기'와 '히', '밤믈'과 '날믈'은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춘 4>에서 '어촌 두어 집'은 '벽구기'와 '버들습'이 어우러진 가운데 '온갓 고기 뛰노'는 자연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면서 현실의 혼탁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하 6>에서 '만고심'이란 어부 생활의 풍류를 즐기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을 떠올리고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내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추 2>에서 '만경 징파에 슬꺾지 용여ᄃ자'는 화자의 말은 자연에 몰입하여 흥취를 즐기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추 2>에서 '머도록 더욱 도타'는 것은 '인간'으로 제시된 현실의 부조리함에 대한 화자의 거리감을 반영한 표현으로 볼 수 있군.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¹³⁾

(가)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그리고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 주고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 주어도 좋다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지 낱아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리라
먼저 긴 잠초 우에
잠자는 구름이여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철 늦은 거미같이 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

방 두 칸과 마루 한 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처를
거느리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쑥**
스러울 수가 있을까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어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피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
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다 보다
날아간 제비와 같이

날아간 제비와 같이 자국도 꿈도 없이
어디로인지 알 수 없으나
어디로이든 가야 할 반역의 정신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
시를 반역한 죄로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

- 김수영, 「구름의 파수병」-

(나)
함이정 : 처녀 때 난 생각했었지. 영리하고 듩직한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쁜 일 슬픈 일 뭐든지 의논할
수 있는 내 아들…… 그러다가 너를 느꼈고…… 네 느낌과
이야기하길 즐겼다. 사람들은 나 혼자 중얼중얼거린다고

괴상하게 보더라. 사실은 너와 나, 둘이서 함께 말하고 있
었는데…….

조승인 :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어머니.

함이정 : 처음부터……?

조승인 : 네. 제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처녀 시절**부터요.
그때 두 분 아버지의 관계는 어땠죠?

함이정 : 그땐 좋았다. 두 분 다 우리 집에서 가족처럼 살면
서, 우리 아버님한테 불상 제작을 배우는 제자였지. **그런데
어느날, 스승인 아버님이 불상 제작장에 가보니까 두 제자
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 몹시 화가 난 아버님은 집 안으
로 들어와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셨지. “동연아! 서연아!”
아버님 목소리 가 어찌나 쩌렁쩌렁 울렸는지, 천 리 밖까
지 들릴 것 같더라.

(조명, 밝게 변화한다. ㉠한가운데 펼쳐 있던 천막이 접혀지면서 무
대 천장 위로 올라간다. 함묘진의 집. 함묘진이 성난 모습으로
등장한다. 함이정과 조승인은 서연의 관, 촛대, 향로 등을 무대
밖으로 갖고 나간다.)

함묘진 :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

함이정 : (무대 밖에서) 여긴 없어요, 아버지.

함묘진 : 여기 집 안에도 없다……?

함이정 : (무대 밖에서) 내가 나가서 찾아올까요?

함묘진 : 넌 가만 있거라. (다시 외쳐 부른다.) 동연아! 서연아!

(㉢상복을 벗고 밝은 색 옷을 입은 함이정과 조승인, 무대 안으로 나
온다.)

조승인 :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

함이정 : 귀머거리도 들을 정도야. 그치?

함묘진 : 동연아! 서연아!

(동연과 서연, 등장한다. 그들은 당황한 모습으로 함묘진 앞에 선다.)

동연, 서연 : 부르셨습니까?

함묘진 : **작업장엔** 너희들이 없더구나!

동연 : 죄송합니다. 잠깐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함묘진 : 밖에는 왜?

동연 : 말다툼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요.

함묘진 : 말다툼?

동연 : 네.

함묘진 : 서연아, 네가 다툼 이유를 말해 봐라.

서연 : 송구스럽습니다…….

함묘진 : 너희 생각도 행동도 똑같았다. 그런 너희들이 말다
툼을 하다니, 도대체 다르다면 뭐가 달랐느냐?

서연 : 동연은 부처의 모습을 만들면, 그 모습 속에 부처의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함묘진 : 그런데, 너는?

서연 : 그런데 저는…… 부처의 모습을 만들어도, 부처의 마
음이 그 안에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했습니다.

13)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현대시/희극 복합 (2016년 11월 시행)

동연 : 사부님, 서연을 꾸짖어 주십시오.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중략)

(서연과 함이정, 일어선다. **물부처**를 만들면서 **길**을 따라간다. 물 흐르는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온다. **◎조명**, **개울물의 흐름을 나타낸다.**)

함이정 : 개울물이에요, 서연 오빠. 여기서 길은 끊겼어요.

서연 : (개울가로 다가가서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며) 너도 마시렴. 목마를 텐데…….

함이정 : (서연 곁으로 가서 개울물을 바라본다.) 물 위에 쳐 보여요, 우리 얼굴이……. 얼굴 뒤엔 구름이……. 구름엔 **하늘이**……. (물을 떠서 마신다.) 물이 맑고 시원해요. [B]

(서연, 장난스럽게 개울물을 마치 눈덩이처럼 뭉치는 동작을 한다.)

함이정 : 오빠……. 뭘 하는 거죠?

서연 : 물부처를 만든다.

함이정 : 물부처요?

서연 : **둘로도 부처님을 만드는데, 물이라고 안 될 건 없지.**

(서연, 흐르는 물 속으로 들어가 물로 만든 부처를 세워 놓는다. 부처의 눈썹은 남고 형태는 사라진다.)

함이정 : 오빠, **이쪽**으로 나와요.

서연 : (개울물을 건너가며) 난 이제 **저쪽**으로 간다.

함이정 : 서연 오빠…….

서연 : 넌 나중에 건너와.

함이정 : (손을 흔든다.) 그래요, 오빠……. 먼저 가요. 나는 나중에…….

(서연과 함이정, 잠시 개울물 양쪽에서 서로를 바라본다. **㉠ 조승인**이 **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며 작곡 중이다. 개울물 건너쪽, 부시도록 밝아진다. 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함묘진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면서 들어온다. 그는 피아노 옆을 지나 개울물을 건너간다. / **코러스(물부처)**들, 개울물을 건너가는 서연을 배웅하듯이, 따라가듯이, 마중하듯이, 서연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며 간다. 개울 저쪽, 눈부시도록 빛이 밝다. **◎함묘진**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들어온다.)

조승인 : 할아버지, 어딜 그렇게 급히 가세요?

함묘진 : 극락문이 열렸다! 극락문이 열렸어!

(함묘진, 휠체어에서 일어난다. 그는 서연의 뒤를 따라 빛 안으로 들어간다. 무대 조명, 변화한다. 동연, 등장한다. 그는 조승인에게 다가와서 전보 용지를 내놓는다.)

- 이강백, 「느낌, 극락같은」-

27.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의 '물건들'까지 살펴보면 서 자기의 생활을 성찰하고 있다.
- ② 화자는 '나의 친구'가 방문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그릇됨'을 자각하고 있다.
- ③ 화자는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존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 ④ 화자는 자신을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죄'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구름의 파수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28. <보기>를 고려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구름의 파수병」에는 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진솔한 자기 성찰이 드러난다. 화자는 ㉠**생활에 몰두하려는 자**안와 이러한 자아를 극복하고자 하면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자**아를 등장시킨다. ㉢은 시선을 고정하려는 태도나 움츠러들어 있는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에서 벗어나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날아간 제비'를 떠올리다가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

- ①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에서는 화자의 진솔한 성찰의 어조가 느껴지는군.
- ② '나는 이미 정해진 ~ 결심하고'는 ㉢과 ㉤의 갈등을 해소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화자가 자신을 '어디로이든 가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은 ㉣에서 ㉤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 ④ 화자가 '메마른 산정'에서 지향하는 '반역의 정신'은 ㉤이 추구하는 것이겠군.
- ⑤ '구름의 파수병'은 두 자아의 갈등 속에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화자의 의식이 반영된 이미지이겠군.

29.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대상을 나열함으로써 화자의 정서가 촉발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는 의미가 확장되는 대상들의 연쇄를 통해 인물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A]의 대상들은 화자의 만족을, [B]의 대상들은 인물의 불만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화자와 대상들 간의 연속성이 드러나고, [B]에서는 인물 간의 단절감이 암시된다.
- ⑤ [A]와 [B]는 대상의 속성을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화자나 인물의 심리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30.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의 특성을 고려할 때, ㉠~㉣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무대 장치의 이동으로 극중 공간을 좌우로 분리시킨다.
- ② ㉡ : 등장인물들의 의상 교체로 장면 전환을 나타낸다.
- ③ ㉢ : 조명 변화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갈등 해소를 보여 준다.
- ④ ㉣ : 등장인물이 무대 밖에서 피아노로 음향 효과를 낸다.
- ⑤ ㉤ : 소품을 이용해서 극적 긴장감을 완화시킨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의 공간이 화자의 내면이 투영된 상징적 공간이라면, (나)의 공간은 제한된 시간 내에 인생을 압축해서 보여 줘야하는 극의 특성상 극중 인물의 현실이 상징화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와 (나)에서, 공간들은 때로 대비되면서 여러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 ① (가)의 ‘집’과 ‘거리’는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화자에게 대비적으로 인식되었던 공간이군.
- ② (가)에서 생활공간과 대비되는 ‘먼 산정’은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응시하기 위해 상정한 공간이군.
- ③ (나)에서 ‘작업장’은 불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동연과 서연의 예술관이 부딪치는 공간이군.
- ④ (나)의 ‘돌부처’를 만들며 가는 ‘길’은 ‘하늘’과 대비되는 곳으로 연의 예술관이 조승인에게 전수되는 공간이군.
- ⑤ (나)의 개울물 ‘저쪽’은 개울물 ‘이쪽’과 대비되는 곳으로 예술의 본질을 추구하던 서연이 도달하게 되는 공간이군.

32. (나)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 ~ 두 제자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라는 대사에서 함이정은 극 중의 사건을 현재에서 과거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 ②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라는 대사에서 함묘진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의 인물들을 무대로 등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 ③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라는 대사에서 조승인은 등장인물의 행동을 평하면서 다른 인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 ④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힙니다.”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동연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 갈등의 한 축으로서 기능한다.
- ⑤ “돌로도 부처님을 ~ 안 될 건 없지.”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서연은 작품의 주제 의식을 전달하는 인물 중 하나로 기능한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¹⁴⁾

좌우에 탁자 놓아 만권 서책 쌓아 놓고
 ㉠자명종과 자명악은 절로 울어 소리하며
 좌우에 당전(唐氈) 깔고 담방석과 백전요며
 ㉡이편저편 화류교의(樺榴交椅) 서로 마주 걸터앉고

거기 사람 처음 인사 차 한 그릇 갖다 준다
 화차중에 대를 받쳐 가득 부어 권하거늘
 파르스름 노르스름 향취가 만구하데
 저희들과 우리들이 언어가 같지 않아
 말 한마디 못 해 보고 덤덤하니 앉았으니

[A] 귀머거리 병어린 듯 물끄러미 서로 보다
 천하의 글은 같아 필담이나 하오리라
 당연(唐硯)에 먹을 갈아 양호수필(羊毫鬚筆) 덤뻑 찍어
 시전지(詩箋紙)를 빼어 들고 글씨 써서 말을 하니
 묻는 말과 대답함을 글귀 절로 오락가락
 간담을 상응하여 정곡(情曲) 상통(相通)하는구나

(중략)

황상이 상을 주사 예부상서 거행한다
 삼 사신과 역관이며 마두와 노자(奴子)까지
 은자며 비단 등속 차례로 받아 놓고
 삼배(三拜)에 구고두(九叩頭)*로 사례하고 돌아오니
 상마연* 잔치한다 예부에서 지휘하기로
 삼 사신과 역관들이 예부로 나아가니
 대청 위에 포진하고 상을 차려 놓은 모양
 [B] 메밀떡에 밀다식에 곱밥 머루 비자(櫃子) 등물(等物)
 푸닥거리 상 벌이듯 좌우에 떠벌였다
 다 각기 한 상씩을 앞에도 받아 놓으니
 비위가 뒤집혀서 먹을 것이 전혀 없네
 삼배주를 마시는 듯 연파(宴罷)하고 일어서서
 뜰에 내려 북향하여 구고두 사례한 후
 관소로 돌아와서 회환(回還) 날짜 택일하니

㉢사람마다 짐 동이느라 각 방은 분분하고
 흥정 외상 셈하러 주주리는 지저귀다
 ㉣장계(狀啓)를 발정(發程)하여 선래 군관(先來軍官) 전송하고
 추칠월 십일일에 회환하여 떠나오니
 한 달 닷새 유하다가 시원하고 상연(爽然)하구나
 천일방(天一方) 우리 서울 창망하다 갈 길이어
 풍진이 분운(紛紜)한데 집 소식이 둔절하니
 사오 삭(朔) 타국 객이 귀심(歸心)이 살 같구나
 승문문 내달아서 통주로 향해 가니
 ㉤울 적에 심은 곡식 추수가 한창이요
 서풍이 삼삼하여 가을빛이 쾌히 난다

- 홍순학, 「연행가」-

* 구고두 : 공경하는 뜻으로 머리를 땅에 아홉 번 조아림.

* 상마연 : 일을 마치고 떠나가는 외국 사신들을 위하여 베풀던 잔치.

14)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전시가.(2016년 11월 시행)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경이로운 풍광에 대한 감상을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
- ② 학문과 관련된 사물을 나열하여 입신양명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객지에서의 낯선 풍물 및 경험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회환할 때의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④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외양과 감정을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제시하여 귀국까지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44.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 지시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와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이동을 앞둔 여유로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새로운 계책을 마련한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45. [A], [B]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간담을 상응하여'는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B]에서 '뜰에 내려 북향하여'는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군.
- ② [A]에서 '우리들'은 '거기 사람'에게 인사로 차를 대접받고, [B]에서 '삼 사신' 일행은 '예부상서'를 통해 황상의 상을 하사 받고 있군.
- ③ [A]에서 '필담'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단을, [B]에서 '구고두'는 의례적 상황에서 감사를 표하는 공식적 예법을 나타내는군.
- ④ [A]에서 '글귀 절로 오락가락'은 난처한 상황이 해소되고 있음을, [B]에서 '비위가 뒤집혀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드러내는군.
- ⑤ [A]의 '귀머거리 벙어린 듯'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B]의 '메밀떡에 밀다식에 곱밥' 등은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 놓은 상황을 알려 주는군.

레전드스터디 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정답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닷컴

<http://LegendStudy.com>

레전드스터디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면 좋을까?
수시모집 최적화 & 합격을 위한 제언

레전드스터디

입시전략 컨설팅 센터

<http://LegendUniv.com>

2016년 3월 고3 모의고사 현대시(2016년 3월 시행)	37.① 38.③ 39.⑤
2016년 3월 고3 모의고사 고전시가(2016년 3월 시행)	43.④ 44.⑤ 45.④
2016년 4월 고3 모의고사 고전시가(2016년 4월 시행)	34.① 35.④ 36.③
2016년 4월 고3 모의고사 현대시(2016년 4월 시행)	43.① 44.⑤ 45.②
2017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고전시가(2016년 6월 시행)	25.④ 26.③ 27.④
2017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현대시(2016년 6월 시행)	34.③ 35.④ 36.④ 37.③ 38.⑤
2016년 7월 고3 모의고사 현대시(2016년 7월 시행)	31.③ 32.④ 33.⑤
2016년 7월 고3 모의고사 고전시가(2016년 7월 시행)	37.⑤ 38.⑤ 39.⑤
2017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고전시가(2016년 9월 시행)	16.③ 17.④ 18.④
2017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현대시(2016년 9월 시행)	19.④ 20.③
2016년 10월 고3 모의고사 현대시(2016년 10월 시행)	35.③ 36.⑤ 37.④ 38.④
2016년 10월 고3 모의고사 고전시가(2016년 10월 시행)	43.② 44.③ 45.②
2017학년도 수능 현대시/희극 복합 (2016년 11월 시행)	27.② 28.② 29.① 30.② 31.④ 32.③
2017학년도 수능 고전시가 (2016년 11월 시행)	43.③ 44.⑤ 45.①

CC BY-NC-ND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저작권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